

# 남·북·미 대화 불씨 살리나... 文, 美 국방부장관 접견

〈대행〉

대통령, 새너해와 북핵문제 논의  
트럼프, 이달 말 G20 후 방한 예정  
정경두 장관과 안보상황 평가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패트릭 새너해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새너해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를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다.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달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분위기를 다소 어둡게 만들었다. 남북미 3국간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문 대통령과 새너해 장관 대행 만남' 관련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은 새너해 장관 대행을 접견해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또) 이달

말 열리는 G20(주요국가 20개국) 정상회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이 함께 남북-북미 대화의 전진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북미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간-남북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 또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대화의 장으로 하루 속히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달 16일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문 대통령이 새너해 장관 대행을 만난 이유는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새너해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새너해 장관 대행과 정 장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한반도 안보 정세와 외교적 논리에 따른 군사적 지원 등 긴밀한 한미간 공조가 요구되기도 하고,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운을 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공조방안에 대해서는 단거리미사일 발사 포함,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6월 국회도 난항... 정쟁만 하는 '식물국회'

더민주, "아직 단독소집 때 아니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  
"6개월째 노는 셈... 7일 개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6월 임시국회 협상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단독소집'은 아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하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했다"며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로 멀어지고 나니 아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헛거리 비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시점에서 정쟁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단독 국회 소집도 미뤄왔는데, 이 상황을 한국당이 아전인수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선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은 지독

한 독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회의를 마치고 나가며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다른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7일 개원을 위해 여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6월 임시회를 개원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생이 등교하고, 직장인이 출근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비유하며 "국회의원이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권

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질타했다.

평화당도 무조건적인 국회 등원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추경,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산더미 같이 쌓인 일 앞에 2019년 국회는 사실상 6개월째 노는 셈"이라며 "6월 국회마저 공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은 "거대 양당 합쳐루기 민생파단,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성하라", "한국당은 토달지 말고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명시한 국회법 5조의 2는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국뽕'에 취해 비틀거리는 방위사업



문명철  
국방기자 칼럼

일이다.

위리어 플랫폼은 방탄복, 헬멧, 전투복, 소총, 광학장비 등 낙후된 장비 개인전투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33개 품목을 새롭게 보급해 장비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UAE는 규모는 작지만, 훌륭한 장비와 훈련여건을 지원받고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도여기 국뽕 한사발 내주오.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국뽕에 취해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제 정신일 리 없다는 이야기다.

국뽕은 국가와 히로뽕이 합쳐진 신조어로, 근거 없이 자국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당국이 열심히 자랑하던 '명품 무기'가 대표적인 일례일 것이다.

미국도 도입하지 못한 명품 무기라고 칭송하던 'K-11 복합소총'은 20mm 유탄, 광학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 결함 문제 등으로 조만간 폐기될 예정이다.

방산수출 효자 'K-9 자주포'는 국군이 사용하는 기종에는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인지 장비들은 명품답게 여름에는 따뜻하다고 말한다.

국뽕이 국내에서만 취한다면,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심정으로 보듬어 주겠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면 외면하고 싶어질 정도로 부끄러워진다.

지난해 10월 1일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는 전군 최초로 위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14진 장비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국방일보는 위리어 플랫폼이 UAE 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위리어 플랫폼이 방산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한바 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자신들 보다 못한 장비를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봤을테니까. 아니 그것보다 뛰어난 최첨에 특전요원들이 장비에 대해 무지한 군수뇌부의 홍보놀음 속에서도 강건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 놀라울

한 군사전문가는 "신형 벤츠를 타는 UAE군이 중국산 승용차를 타고 자랑하는 한국군을 본 꼴"이라며 "UAE군은 2011년경에도 이오텍과 ACOG 같은 고성능 장비를 사용했는데 들어본 적 없는 장비를 착용한 한국군을 보면 충분히 놀랄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 보면 군사요구도(ROC)부터가 제대로 잡혀진게 맞을까란 생각도 든다. 국방일보는 방호력과 활동성을 다잡은 택티컬 베스트(전술조끼)는 무게 중심을 위로 올려 상대적인 무게를 감소시켰다고 전했다.

우선 용어부터 틀렸다. 경량화 방탄복의 한 종류인 플레이트 캐리어가 정확한 용어다. 무게 중심을 올린 건 주요장기가 모여있는 상체 윗부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본적인 장비를 모르는데 격한 칭송이라니, 맥반석 오징어처럼 오글거린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는 "단기간 홍보를 위해 미국 C사 제품을 불법복제한 제품을 아크부대와 동명부대에 입히다 보니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명품무기 K-11 복합소총은 사라졌지만, 납품한 회사는 차세대 기관단총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제품 생산능력도 없는 유령회사들도 국산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방위사업에 뛰어든다. 국산화와 명품무기타령 같은 '軍정신성 약품'이 방위사업과 관련 산업을 망치는 것 아닐까. /captinn@

## 서훈-양정철 만남에... 文 지지율 하락

전주 대비 1.7%p 하락한 48.3%

(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5%)를 조사해 3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장시간 비공개 만남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7%p 하락한 48.3%, 부정평가는 1.5%p 오른 47.1%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보인 상승세가 꺾인 것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그달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5월 5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양원장과 서원장의 비공개 만남 논란 장기화가 한 몫 했다는 게 중

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원장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적인 만남이건 공적인 만남이건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흠집이 난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후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두 원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